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영화 '타짜:신의 손'

두근두근 vs 타짜2 추석 극장가 승자는?

내일 개봉...예매율 24%대 1,2위로 박빙
송혜교·강동원, 신세경·최승현 커플대결

추석 연휴에도 극장가에서 격전이 펼쳐진다. 흥행 신기록을 세운 '명랑'으로 뜨거워진 극장가의 온도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노린 두 편의 한국영화가 3일 나란히 개봉한다. 스타 배우와 감독이 동진 '두근두근 내 인생'(두근두근)과 '타짜:신의 손'(타짜2)이다.

올해 추석에는 예년보다 개봉편수가 적지만 속은 실하다. 아시아를 무대로 삼은 한류 스타 송혜교가 처음으로 엄마 연기를 소화했고, '청순 클레머'란 별칭으로 불린 신세경은 과감한 노출 연기를 펼쳤다. '팬텀'을 몰고 다니는 아이돌 스타 최승현과 티켓 파워 강한 강동원이 이들 여배우의 파트너로 합류했다. 관객 기대치를 드러내는 예매율부터 박빙이다. 개봉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2시 현재 '두근두근'은 24.2%, '타짜2'는 24.1%의 예매율로 1, 2위를 나눠 가졌다. 비록 순위는 같았지만 두 영화의 예매율 격차는 단 0.1%포인트. 개봉 후 치열한 흥행 접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두근두근'에서 만난 송혜교와 강동원, '타짜2'의 신세경·최승현 커플 가운데 누가 더 폭넓은 관객의 선택을 얻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연인설'에 시달리기도 했던 송혜교와 강동원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가운데 가장 신선한 변신을 택했다. 극중 17살에 아들을 낳은 부부 역할이다. 특히 첫 엄마 연기를 펼친 송혜교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개봉 전 만난 송혜교는 "모성애를 가진 인물이지만 친구 같은 엄마의 모습이 더 많다"며 "밝고 명랑한 성격이 실제 나와 닮아 어려움 없이 연기했다"고 밝혔다.

신세경과 최승현의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화투판 고수들의 세계를 그린 영화에서 이들은 쉽게 승부를 가릴 수 없는 '타짜'로 맞붙는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신세경이 소화한 첫 노출 연기. 영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그는 속옷을 벗고 엉덩이를 노출한다. 개봉에 앞서 신세경은 "영화 캐릭터에 비하면 노출은 문제될 게 없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트위터@madeinarry



루시드폴 11월8일 결혼

가수 루시드폴(조윤석·39·사진)이 11월8일 일반 여성과 결혼한다. 예비신부는 연예계와 관련 없는 일반 여성이며, 루시드폴의 고향인 부산에서 가족, 친지들의 참여 속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신접살림은 현재 루시드폴의 현 거주지인 제주도도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드폴은 1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소식을 발표하며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로코퀸' 세대교체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

●수영 - MBC '내 생애 봄날'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여인으로

●크리스탈 - SBS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청초하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심은경 - KBS 2TV '내일도 칸타빌레'
영동하면서도 귀여운 4차원 캐릭터로

'안방극장' '로코퀸'의 세대교체?

손예진·김선아·공효진·정유미·최강희 등 30대 배우들 위주로 구축된 '로코퀸'(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에 이어 그들 소녀시대의 수영, 에프엑스의 크리스탈, 심은경 등 20대 초반의 스타들이 그 바통을 짊어 새로운 세대로 떠오르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잇따라 내세우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통해 자신만의 매력을 내세우며 새로운 '로코퀸'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3인방'은 그동안 작품에서 조연 등에 지나지 않았던 작은 역할에서 벗어나 각자 주연으로서 시청률 사냥에 나선 기세여서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녀시대의 수영은 10월부터 방송하는 MBC 수목드라마 '내 생애 봄날'을 통해 톱톡 튀는 매력을 드러낸다. 드라마는 시간부담을 살다가 장기이식으로 새 심장을 얻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여인의 이야기를 담는다. 극중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다루지만, 수영이 맑고 명랑한 캐릭터가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제작진은 "유쾌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드라마에서 수영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20세 차이가 나는 감수성과 펼칠 로맨스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수영과 동시간대 경쟁을 펼치는 크리스탈도 눈여겨볼 만하다. 두 사람은 같은 기획사 소속으로 음악 활동에 이어 연기자로 나서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

크리스탈은 17일부터 방송하는 SBS 수목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를 통해 제목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지난해 방송한 SBS '왕관



수영

심은경

을 쓰러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에서도 안정된 연기력으로 눈길을 끌었던 그는 이번엔 확실한 연기자로서 이미지를 굳힐 각오다. 가요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만큼 청초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가진 크리스탈에게 제작진은 기대를 걸고 있다.

영화에서 종횡무진하던 심은경은 자리를 옮겨 4년 만에 안방극장을 찾는다. 심은경은 10월 방송 예정인 KBS 2TV 월화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에서 설날을 연기한다. 영동하면서도 귀여운 '4차원' 캐릭터다. 특히 드라마는 2006년 일본에서 방송돼 인기를 끌었던 '노다메 칸타빌레'를 리메이크하는 무대로, 심은경이 당시 화제를 모았던 우에노 주리의 캐릭터를 맡는다는 점에서 색다른 시청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크리스탈

예능으로 의상으로...가요계, 중국 우회진출

나나, 상하이동방TV '여신의 패션' 출연
차니스, 중국전통의상 개량복 입고 활동

케이팝 가수들이 중국에서 음반을 발표하는 등 직접적인 진출 방식을 택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 시장에 조응하며 스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오렌지카라멜로 활동 중인 나나가 현재 패션 주제를 한 상하이동방TV 예능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고정출연하며 주목받는 가운데 베스티, 차니스 등 걸그룹들도 중국인들에게 온근히 호감을 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트롯 걸그룹' LPG의 첫 유닛인 차니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차니스(Chaness)는 '중국인'을 뜻하는 '차이니스'(Chinese)를 연상시키는 팀 이름부터 중국인들에게 친숙함을 준다. 차니스는 최근 '씨씨씨'로 활동을 시작하며 무대의상도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를 개량한 의상을 선택했다. LPG가 중국 측의 행사 출연 제안을 많이 받는 그룹이었던

만큼 차니스도 유닛 활동을 준비하며 '아시아 시장'을 겨냥했다.

여성 4인조 베스티는 국내외 앨범에 중국어 버전의 노래를 담은 이색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연말쯤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베스티는 한국에서 발표한 노래 중 1곡을 중국어로 번안, 수록해 중국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생각이다. 인터넷으로 국내 케이팝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환경에서, 중국에서 따로 현지어 음반을 내지 않아도 중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베스티의 중국어 노래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일본의 한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의 한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어 케이팝 가수들의 이런 노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베스티 소속사 YNB엔터테인먼트 측은 "중국어 번안곡 수록이 현지 케이팝 팬들에게 환영을 더 다가가는 의미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상하이동방TV 예능프로그램 '여신의 패션'



LPG 유닛 '차니스'

장동건 "인천AG 문화행사 출연료 전액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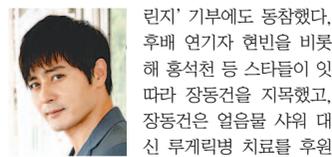
톱스타 장동건(사진)이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문화행사 출연료를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장동건은 19일 오후 6시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내레이션을 맡고 아시안게임을 전 세계에 알린다. 이를 통해 얻는 출연료를 좋은 곳에 쓰이길 원하며 기탁하기로 했다.

장동건의 소속사 측은 1일 "국가행사이기

도 하고 좋은 취지로 참여하는 만큼 출연료를 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장동건은 현재 도움이 절실한 기부처를 모색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 홍보대사인 장동건은 평소에도 희귀 난치병 어린이 돕기, 미혼모 및 임산부 관련 단체에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등 4년째 기부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아이스 버킷 챌



린지' 기부에도 동참했다. 후배 연기자 현빈을 비롯해 홍석천 등 스타들이 잇따라 장동건을 지목했고, 장동건은 얼음물 샤워 대신 루게릭병 치료를 후원하는 한국 ALS협회에 기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동건이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장동건은 영화 '우는 남자' 이후 차기작을 고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연예뉴스 스테이션

손호영, 신인가수 아미와의 열애설 부인

가수 손호영(34·사진)이 1일 제기된 신인가수 아미(25)와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손호영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 측은 "손호영과 아미는 한때 같은 소속사 가수로 활동하며 친분을 쌓은 친한 선배이며 연인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손호영은 아미와 친한 선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탁, 4개월째 교제 중이라는 열애설에 휩싸였다. 또한 자전거를 함께 타는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아미는 드라마 '아이리스2', '나만의 당신' 등의 삽입곡을 불렀다.

서태지, 10월18일 컴백공연 개최 발표

서태지가 '스포츠동아' 단독보도(7월9일자 19면)대로 10월18일 서울 잠실동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컴백공연 '크리스탈로윈'을 개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서태지는 이날 9집 수록곡을 최초로 공개한다. 서태지는 이날 공연을 위해 세계적인 밴드 메탈리카가 월드투어에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JBL 최상위기종 VTX스피커를 국내 공연사상 최대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유명 스피커 디자이너 폴 바흐만이 방한한다. 공연제목 '크리스탈로윈'은 크리스마스스와 할로윈의 합성어로, 새로운 음악 축제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영애, 모교 한양대 대학원 원우회 연극 마케팅

배우 이영애(사진)가 모교인 한양대 대학원 연극전공 원우회가 준비중인 첫 연극 '우리집의 인형들'에 마케팅 담당자로 참여한다고 대학 측이 1일 밝혔다. '우리집의 인형들'은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으로 평가받는 헨리크 입센의 원작 '인형의 집'을 각색한 작품.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대학로 한양대페퍼토리 무대에 올린다. 이영애는 이 연극의 마케팅에 참여하고, 정일우는 기획에 참여한다.

CJ CGV,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5년 연속 1위

CJ CGV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 부문 5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가운데 5년 연속 이 부문 1위를 차지한 건 CJ CGV가 유일하다. CJ CGV는 1일 "영화관람을 넘어 극장을 찾는 경험을 특별한 즐거움으로 만드는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해온 점을 인정받았다"며 "4DX, IMAX, ScreenX 등 다양한 기술을 반영한 특별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더 프라이빗 시네마 등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국가브랜드경쟁력 지수는 국내 기업이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만들어진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비롯해 소비자와의 관계구축 등을 총괄 평가해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을 산출한 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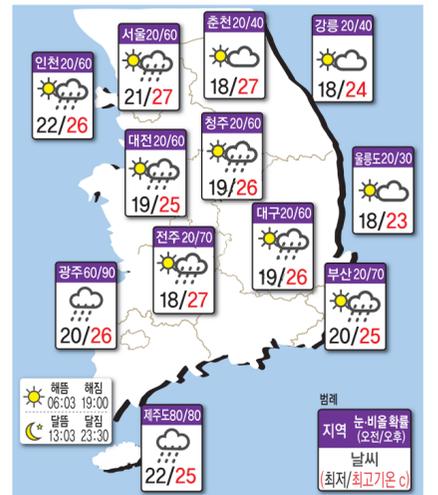
머라이어 캐리 10월8일 내한공연 "11년 만이다"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11년 만에 내한공연을 한다. 머라이어 캐리는 10월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미, 아이 엠 마리아.. 더 일루시브 산투스 쇼'란 제목으로 무대를 펼친다. 2003년 이후 11년 만에 벌어지는 내한공연은 최근 발표한 14집의 아시아 투어 일환이다. 머라이어 캐리는 '히어로' '아일 비 테어' '위아웃 유' '더 치 마이 바다' 등으로 인기를 누렸다. 공연 입장권 예매는 2일 오후 2시부터 인터넷에서 시작된다. 1544-1555.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오늘의 날씨

9월 2일 화요일 (음력 8월 9일)



주간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3일(수) 19/22 18/22 20/24 21/25 20/26 24/29
4일(목) 21/26 19/25 20/26 21/25 21/27 22/27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중구 황계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74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광고국장 이승욱 02 2020 1068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